



국립대전현충원, 2026년 병오년 새해맞이 참배행사 실시

- 1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총 80여 개 기관 2,800여 명 참여

- 국립대전현충원(원장 직무대리 김상현)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 참배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.
- 2026년 새해맞이 참배행사는 1월 2일부터 7일까지 공휴일 제외 총 4일간 현충탑에서 이뤄지며, 육·해·공군 참모총장, 정부 세종·대전청사,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임직원, 대전·충청지역 공공기관의 단체장 및 임직원, 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·출연기관의 장 및 임직원 등 총 80여 개 기관 2,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.
-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일, 광복절, 국군의 날 등 주요 기념일에 참배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, 그 외에도 국민 누구나 연중 수시로 참배를 할 수 있다.
- 김상현 현충원장 직무대리는 “병오년 새해를 맞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찾는 열린 대전현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사진(1월 2일 참배) 1부. <끝>



국가보훈부 장관



육군참모총장

담당 부서	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	책임자	팀 장	안수일 (042-820-7040)
		담당자	주무관	성시열 (042-820-7062)